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노자의 자연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

김 현 기

2013년 2월

노자의 자연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 방 주

김 현 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김현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2월

국문초록

노자의 자연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

김 현 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본 논문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자의 자연사상을 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 중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도덕경과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본 자료로 삼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들을 활용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는 자연(自然)을 천지만물의 움직임으로 보았고, 무위(無爲)는 인간의 움직임으로 보았다. 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의 원리가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自然) 무위(無爲)는 의미상 구별이 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한다. 즉 자연(自然)은 진리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면, 무위(無爲)는 인간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환경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도는 환경윤리와 생태철학의 근거가 된다. 즉 도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탈인간중심주의,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순환체계가 그것이다. 또한 무위로부터 환경윤리적

규범으로서의 덕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배려의 자애(慈)와 욕망을 그치는 검소(儉), 공생과 조화의 겸손(謙) 등이다.

우리의 환경윤리교육은 첫째, 교육 내용의 설정에 있어서 대체로 과학 기술적,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고 둘째, 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 체계화가 미흡하고 학년 간, 교과 간의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며 셋째,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윤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로는 첫째, 환경윤리교육이 여러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각 과목끼리 연계가 부족하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 친화적 인식으로의 전환과 경쟁적 이익추구와 욕망충족에 대하여 반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무위(無爲)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입식 강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집중이수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근거와 현실 파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환경윤리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적 사고로부터 노자의 환경윤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다. 노자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이를 이용, 파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자연이법(自然理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서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 사고방식으로부터 전환하여 노자의 자연관이 말하는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갖고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인위적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환경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환경윤리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무위자연의 덕목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노자의 자연관에

서의 무위(無爲)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 인간은 무위(無爲)의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水)의 덕행(德行)이며 이를 가리켜 노자는 상선(上善)이라 말한다. 또한 노자는 유약(柔弱)을 강조하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과 무극(無極)으로 돌아가는 것 즉 양극의 대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이런 극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과욕을 억제하고 소박(素朴)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다.

셋째는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은 자연, 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환경 교육적 접근이 통합될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환경윤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연관된 문제이다.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전략 방법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자한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윤리의식은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참여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특성, 내용과 형식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다. 가능하면 초기에는 관찰, 게임, 현장견학 또는 방문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과제학습, 사례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의 개별학습 활동 또는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자료로는 야외학습, 영상자료, 슬라이드나 화보, 책에 의한 인쇄자료 순서로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프로그램 또한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행 과정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즉 다루는 내용과 대상을 의도적으로 한정시키고 있고, 결과의 도출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물 들인 2차, 3차 자료 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노자의 자연사상과 그 환경윤리적 의의	5
1. 도와 덕(道德)	6
2. 무위와 자연(無爲自然)	12
2. 도덕과 무위자연의 환경윤리적 의의	20
III. 현행 중학교 환경윤리교육의 실태와 과제	27
1. 환경교육 전반	27
2. 도덕과의 환경윤리교육	31
3. 환경윤리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40
IV. 노자의 자연사상에 기초한 중학교 도덕과 환경윤리교육 방안 ..	44
1. 자연에 대한 인식의 확립	45
2. 무위자연 덕목의 체득	48
3.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 학습 전략의 수립과 시행	50
4.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56
V. 결 론	59
참고문헌	64
Abstract	68

I. 서 론

오늘날 인류는 자연과학에 기반하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이제까지 없었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다가 하면 미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다양하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 중에 환경위기는 우리 인류에게 닥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생명체들이 하루에도 약 1백여 종 이상 소멸하고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는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고,¹⁾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실제로 예를 들자면, 2011년도 말경 태국에서 대홍수나 해년마다 더 잦아지는 미국의 거대한 허리케인 및 토네이도, 폭우와 폭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무더위와 한파 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기상 이변을 비롯한 환경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연관되어 확산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책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상 최대의 국제 회의라고 하는 ‘리우 정상회담(1992년)’이나 그 후속으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WSSD)’에서도 논의는 무성했지만 그 실천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과 ‘국익’ 두 가지의 가치 가운데 늘 상 우리는 후자를 우선시해 왔고, 현 상황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²⁾ 따라서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긴급하게 해결 되어야만 할 실천적 과제를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위기는 어디서 초래된 것인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는 우선 산업화로 인한 각종 오염 물질 배출 및 자원의 고갈을 가져오게 하여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

1) 서규선, 문종길(2001), 「환경윤리와 환경윤리 교육」, 경기: 인간사랑, p. 17.

2) 김일방(2005), 「환경 윤리의 쟁점」, 서울: 서광사, p. 5~6.

기에 이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를 더 이상 분할 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입자’이며, 자연 세계는 이러한 입자들의 분리와 결합 등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기계론적 자연관, 그리고 자연현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양태들을 무시해 버리고 단순히 일반적인 인과법칙으로 환원시켜 재구성하는 환원주의적인 자연관에 의해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위한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만 보는 인간중심주의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한 철학적 검토가 없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윤리의식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환경 위기의 극복은 과학기술에 의한 해결책과 사회제도적 해결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즉, 가치관적 접근방법인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즉 자연 환경 위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³⁾ 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연 환경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을 다각도로 보는 인간의 시각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의 위기를 초래한 자연관을 새롭게 전환함에 있어서 노자의 자연사상을 환경윤리학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노자의 자연사상⁴⁾에 의하면 자연은 ‘도의 작용’에 의해 ‘인위(人爲)’함이 없이 ‘무위(無爲)’하며,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위자연(無爲自然)은 인간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드러나 있다. 즉, 인간과 자연을 둘이 아닌 하나로 바라보는 일원론적 세계관과 탈인간중심적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어 오늘날의 환경위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노자의 자연사상이 현대 환경 위기를 단순히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자연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전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자연사상과는

3) 문민정(2008), 「노자사상과 환경윤리적 의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p. 1~2.

4) ‘자연사상’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자연관’, ‘자연철학’ 등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행위의 규범으로서 생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가치체계라는 의미에서 ‘자연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노자의 자연사상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 결과들을 교육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식의 변화를 꾀함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학생은 가치관의 형성기에 들어섰지만 그 능력이 아직 덜 갖추어져 있는 관계로 기존의 사상 즉 현대 과학문명의 토대가 되고 있는 자연사상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도덕적인 실천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환경윤리교육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환경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과정에 기존의 도덕과와는 별도로 환경관련 교과목을 독립적인 선택과목으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관련 과목들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도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환경과목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환경윤리교육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덕과에서의 환경윤리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다루는 내용이 근본적인 가치관과 실천의지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에서 환경의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노자의 자연사상을 적용하여 올바른 자연관 형성과 그 실천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실천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에 의한다. 「도덕경(道德經)」을 근거로 노자의 자연사상을 연구한 결과물들과 그동안 발표된 많은 관련 교수학습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연에 대한 바른 윤리의식과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순서와 범위로 II장에서는 노자의 자연사상에 대해서 도와 덕, 무위자연과 덕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환경윤리적 의의를 논한다. III장에서는 현행 중학교 과정에서 행하고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의 환경관련 교과와 도덕과를

토대로 살펴 본다. IV장에서는 노자의 자연사상을 적용하여 환경윤리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가치관의 형성 내지 전환을 이루어내는 방안과 구체적인 교수학습에의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과 그에 따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중학교 도덕과 내용에 한정하고 다루는 학습 내용도 학생 개인의 의식과 의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둘째, 노자사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 중 자연사상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즉 도와 덕, 무위자연과 그 덕목으로 대상을 좁혀서 논한다.

셋째, 현행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적용과정이 다르거나 내년에 바로 다른 과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등이 문제가 있는데 일괄하여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도덕과 이외의 환경 관련 교과와 내용도 참고하지만 본 논문은 환경교육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차원의 환경윤리교육에 한정하여 다룬다.

넷째, 사용하는 자료는 원 자료를 목적에 따라 비교 분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물 들인 2차, 3차 자료 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용된 「도덕경(道德經)」의 해석은 김하풍(2008), 「빈 마음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서울: 문예출판사. 오강남(2008), 「도덕경」, 서울 : 현암사. 임채우(2001), 「王弼(왕필)의 도덕경」, 서울: 예문서원. 최진석(2002),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등을 참고하였다.

Ⅱ. 노자의 자연사상과 그 환경윤리적 의의

노자는 도가의 시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그가 저술한 「도덕경(道德經)」 책 한 권뿐이다. 이런 노자의 철학적 배경에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어, 인간이 만든 문명과 문화에 대해 부정적 비판의식이 기초가 되었고, 이러한 비판의식이 노자 철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노자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 주장하였다. 자연을 보면 규칙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듯, 자연의 순환을 거스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여, 자연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무시하였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규칙과 질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고, 도덕적 가치를 내세웠으나 그로 인해 인간의 사회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어 혼란만 가중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

원래 자연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이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싫어한다.’와 같은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보이지 않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한 결 같이 움직일 뿐이다.

노자는 당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생각된 유가를 주로 비판하였다. 우선 노자는 유가가 만들어 놓은 예법이나 규범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오히려 이를 따르느라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 적용하다보니 혼란만 가중되며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유가의 ‘인의예지(仁義禮智)’사상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거짓된 행동과 교묘한 술수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유가의 사상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짓과 도적질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인간 사회의 윤리와 가치문제에 대한 유가적 사상의 허점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인의예지(仁義禮智)’라든지 예법에 의한 정치란 사실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

5) 안중수(2006),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주), p. 195 ~ 200.

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이런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연스런 본성(本性)을 좇아 도(道)를 따르는 참다운 삶을 권하였다.⁶⁾

이처럼 노자는 인간의 만든 인위적인 제도나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인간의 삶이 아닌 자연의 순리를 한결 같이 따르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상적이라 생각하였다.

노자의 철학의 주된 내용은 무위(無爲)의 철학이라고도 말할 하면서 도(道)에 대한 개념과 기능, 도(道)와 만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작위(作爲)하지 않은 유유자적함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노자 사상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 도와 덕(道德)

노자의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도(道)와 덕(德)이다. 먼저 도(道)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호하며 복잡하다.⁷⁾ 그는 도(道)를 무(無)라고 하였고, 천지 만물의 생(生)에는 반드시 도(道)가 있다고 하여, 만물의 근원이라 하였다. 그러나 도(道)는 이 만물의 근원에 붙인 임시적인 이름에 불과하다. 만물의 근원인 도(道)는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도(道)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도(道)는 항상 변하지 않는 도(道)가 아니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이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⁸⁾라고 하였다.

도(道)는 한정되지 않는 실재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나타낼 수 없으나 노자는 이 실재를 대(大)·허(虛)·무(無)·무극(無極)·곡신(谷神)·현빈(玄牝)의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감각이나 사고로 알 수 없는 만물의 근원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단지 도(道)는 만물의 근원 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자가 도(道)를 무(無)로 봤다는 것이다. 여러 곳에서 그는 도(道)를 무(無)와 허(虛)로 표현하면서 만물의 근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⁹⁾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무(無)는 단순히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6) 임채우(2001), 「왕필(王弼)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p. 23.

7) 풍우란(1999), 「중국철학사-상」, 박성규 역(1999), 서울: 원미사, p. 283.

8) 「道德經」 1장,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9) 안중수(2002), 「동양철학의 흐름」, 서울: 소강출판사, p. 41.

모든 부분에서의 참된 모습과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無)는 단순히 유(有)와 무(無)의 구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덕목들을 초월하고, 의지를 가지고 만물들을 지배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저절로 생성·변화하도록 그냥 둔다. 이것을 노자는 무위(無爲)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는 “도는 항상 하는 일이 없지만 아니 하는 일이 없다.”¹⁰⁾라고 설명하였다. 의미를 가진 존재가 없어도 이 세계는 스스로 잘 운영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노자는 가지고 있었다.¹¹⁾

한편 노자는 덕(德)을 어떤 본질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그 도(道)의 본질 또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道)의 개념은 현실로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다면 추상적이고 공허한 사변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덕(德)¹²⁾이다. 다시 말해 덕(德)이란 현실 및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개념이고, 도(道)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 추상적·보편적 사유의 산물이다. 따라서 도의 정확한 인식은 덕(德)의 파악으로부터 주어진다.¹³⁾

노자가 말하는 덕(德)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통하여 발휘되는 도의 공능(功能)이다.¹⁴⁾ “도(道)는 만물을 신생하고, 덕(德)은 만물을 양육한다.”라고 말하였다.¹⁵⁾ 즉, 도(道)는 천지만물의 생성원리이며 만물의 근원이다. 또한 덕(德)은 한 사물의 생성원리라고도 볼 수 있고, 덕(德)이란 “도(道)의 거처”이며 “도(道)가 사물에 깃든 것”이라 볼 수 있다.¹⁶⁾ 그리고, 덕(德)은 오직 도(道)만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道徳經)」 38장에서 덕(德)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10) 「道徳經」, 37장, “道常無爲 而無不爲名.”

11) 안중수(2002), 전계서, p. 39 ~ 44.

12) 허만현(1997), 「노자의 인간관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15 ~ 18.

13) 조현규(2001), 「동양윤리사상의 이해」, 서울: 새문사, p. 136.

14) 박덕인(2004), 「노자 사상의 환경윤리적 함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 42.

15) 「道徳經」, 51장, “道生之 德畜之.”

16) 풍우란(1999), 전계서, p. 288

상덕(노자의 덕의 개념:上德)은 덕(德)이 아니다. 그러므로 덕(德)이 있다. 즉, 가장 훌륭한 덕(德)은 덕(德)을 의식하지 않아 오히려 ‘덕(德)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덕(유가의 덕의 개념:下德)은 덕(德)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德)이 없다. 즉, 정도가 낮은 덕(德)은 덕(德)에 얽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덕(德)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상덕(上德)은 무위(無爲)하여 무엇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 즉, 가장 훌륭한 덕(德)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덕행(德行)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므로 자연스럽다.

하덕(下德)은 유위(有爲)하여 무엇을 위해 행한다. 즉, 정도가 낮은 덕(德)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부자연스럽다.

상인(上仁)은 유위(有爲)하되 무엇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 즉, 가장 훌륭한 인(仁)은 의도적으로 어진 행위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아 자연스럽다.

상의(上義)는 유위(有爲)하고 무엇을 위해 행한다. 즉, 가장 훌륭한 의(義)는 의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억지로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하여 부자연스럽다.

상예(上禮)는 유위(有爲)하여, 누가 바로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먹살을 잡는다. 즉, 가장 훌륭한 예(禮)는 의도적으로 예절 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하지 않으면,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잡아 이끌어서 강제로 예절 행위를 시킨다.

그러므로 도(道)를 잃은 후에 덕(德)이고, 즉, 이 때문에 무위자연의 도(道)가 사라지고, 무위자연의 도(道)가 사라진 후에 무위자연의 덕(德)이 나타나고, 덕(德)을 잃은 후에 인(仁)이고, 즉, 무위자연의 덕(德)이 사라지면 인위적인 인(仁)의 도덕이 나타나게 되고,

인(仁)을 잃은 후에 의(義)이고, 즉, 인위적인 인(仁)의 도덕이 사라지면 인위적인 의(義)의 도덕이 나타나게 되고,

의(義)를 잃은 후에 예(禮)이다. 즉, 인위적인 의(義)의 도덕이 사라지면 인위적인 예(禮)의 도덕이 나타나게 된다.

무릇 예(禮)는 충과 신의 옅음이며 어지러움의 시초이다. 즉, 예(禮)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참다운 마음(정성과 믿음)이 옅어져서 생긴 것이며 인간

관계가 어지러워진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¹⁷⁾

여기서 덕을 상덕(上德)과 하덕(下德)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덕(德)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덕은 사람의 수양이나 교양 정도에 따라 차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바로 도(道)에 합치되는 상덕(上德)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덕(德)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67장에서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보배가 셋이 있어 그것을 지니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이고, (慈)
둘째는 검소함이고, (儉)
셋째는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다. (不敢爲天下先)
자애로우니 용기를 낼 수 있고,
검소하니 너그러울 수 있고,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으니 영도자가 될 수 있다.
자애를 버리고 용기를 내거나,
검소함을 버리고 너그럽거나,
뒤에 섬을 버리고 앞서면 죽음이다.
무릇 자애로움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을 가지고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켜줄 것이다.¹⁸⁾

여기서 삼보(三寶)를 노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어떤 경에서나 이 세 가지 지침을 지킨다는 뜻에서 그가 보물로 간직하는

17) 「道德經」 38장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 而無以爲 下德爲之 而有以爲 上仁爲之 而無以爲 上義爲之 而有以爲 上禮爲之 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18) 「道德經」 67장, “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能成器長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夫慈以戰則勝, 以守則固, 天將救之, 以慈衛之.”

것인데, 이것은 곧 덕(德)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내는 현상이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의 세 가지는 곧 덕(德)의 형태들이라고 생각된다.¹⁹⁾ 여기에서 ‘자(慈)’는 자애로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따뜻한 눈빛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물이나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선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고 신뢰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신뢰로 대할 수 있다. ‘검(儉)’은 아낀다는 것이고,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는 것은 앞장서서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첫 번째 보물인 ‘덕(德)’의 형태는 자(慈)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뜻한다. 도(道)는 세상의 어머니, 세상에 대한 도(道)의 태도와 같이 낳고 기르고 감싸주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주기만 하는 마음인 것이다. 이런 자(慈)를 지닌 사람이 노자가 말하는 ‘덕(德)’이 내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두 번째로 보물인 ‘덕(德)’의 형태가 바로 ‘검(儉)’이다. 이것은 아낀다라는 뜻인데 바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¹⁾ 노자의 「도덕경(道徳經)」 59장에서도 말하고 있다.

사람을 지도하고 하늘은 섬기는 일에
검약하는 일보다 좋은 것은 없다.
검약하는 일은 일찍이 (道) 따르는 일이다.
일찍이 따른다는 것은 끝없이 덕을 쌓음을 말한다.²²⁾

여기서 검(儉)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물자의 절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에 집착해 자신의 마음과 정기를 그쪽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노자는 자애롭고 절제된 눈빛으로 자시이나 타인을 대하는 것이 덕(德)을 쌓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19) 최진석(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p. 377.

20) 최진석(2001), 상계서, p. 377.

21) 최진석(2001), 상계서, p. 377.

22) 「도徳經」 59장, “治人事天莫若嗇 夫唯嗇 是以早服 早服 謂之重積德.”

세 번째 보물인 ‘덕(德)’의 형태는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인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다.’라는 겸(謙)을 말한다.²³⁾ 이 뜻은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겸손(謙遜)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세 가지 ‘자(慈), 검(儉), 겸(謙)’이 내재한 덕(德)이 바로 ‘상덕(上德)’인 것이다. 그럼 상덕(上德)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상덕(上德)이란 바로 도(道)에 합치되는 완전히 무위(無爲)·무욕(無慾)한 덕(德)으로서, 그러한 덕을 지닌 사람은 덕(德) 자체를 의식하는 일도 없고, 덕(德) 있는 행동을 하되, 그 행동은 이런 목표도 없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하덕(下德)은 덕(德)을 닦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그의 행동에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²⁴⁾

또한 노자의 도덕(道德)은 무위자연에 입각하여 유가의 인(仁)·의(義)·예(禮)를 비판하고 있다. 노자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상덕(上德)이라고 표현하면서 유가의 인(仁)·의(義)·예(禮)는 인위적(人爲的)이면서 억지로 지어낸 말과 개념의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덕(德)이라 할 수 없는 하덕(下德)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노자의 덕(德)과 유가의 덕(德)의 차이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즉,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말하는 덕(德)은 ‘자연적인 품성’과 ‘무위’를 뜻하고, ‘보편적’이고, 자연과 인간의 일원론적인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유가의 덕(德)은 ‘비자연적인 품성’과 ‘인위’를 뜻하고, 인간 사회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자연과 인간을 상대적인 것이임을 알 수 있다.

노자가 최상급의 인(仁)·의(義)·예(禮)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가를 비롯한 보통 사람들이 그것들을 훌륭한 덕(德)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들은 의식적인 행동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실한 ‘덕(德)’이 아닌 ‘하덕(下德)’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²⁵⁾ 이처럼 노자는 덕(德)을 유가의 덕(德)과 함께 비교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도(道)와 덕(德)의 일치가 되는 상덕(上德)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 노자에 의하면 진실한 덕(德)은 오직 ‘도(道)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도(道)처럼 완전히 무위(無爲)하여야만 하는

23) 최진석(2001), 전개서, p. 377.

24) 김학주(2000), 「노자」, 서울: 을유문화사, p. 67.

25) 김학주(2000), 전개서, p. 67.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도 일단 유위(有爲)하기만 하면 그것은 덕(德)이 될 수 없는 것이다.²⁶⁾ 덕(德)은 세상 모든 것들에게 편재되어 있는 도(道)의 작용이기 때문에 덕(德) 또한 세상 모든 것들에게 편재되어 있다. 덕(德)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편재될 수 있는 것은 무위(無爲)에 의한 인간 행위를 매개로 했을 경우이다. 그러나 덕(德)은 밖에 있는 것을 내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덕(德)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결국, 인간이 어떤 것을 지니고 있어야 도(道)와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인간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⁷⁾

2. 무위와 자연(無爲自然)

노자의 자연사상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중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상은 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처럼 노자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욕망 추구를 위한 인위적인 작위(作爲)를 부정하고, 사람들이 도(道)로 복귀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를 권하였다.

먼저 노자에게 있어 자연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Nature’라는 뜻을 생각하게 된다. 즉 자연을 하늘, 강, 바다, 산, 들과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 또한 자연 과학자에게 자연은 인간 외부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세계를 뜻한다. 오늘날에는 주로 우주, 천지, 만물 등 인간의 자연적 생활환경을 가리켜 자연이라고 한다.²⁸⁾

그러나 노자의 자연적 개념은 좀 색다르다. 노자 「도덕경(道德經)」 25장을 보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²⁹⁾라고 표현하였다. 끝 부분에 도(道)는 자연을 따르는데, 여기서 자연은 “한 없이 크고 넓으며 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천지, 즉 자연을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근원적 실재”라는 것이다.³⁰⁾

26) 조현규(2001), 전계서, p. 137.

27) 박덕인(2004), 전계서, p. 46.

28) 우중모·유병래(1997), “노장의 자연철학과 현대 환경문제”, 「장안논집」, 제17권, 장안전문대학 p. 44

29) 「道德經」 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30) 진교훈(1998), 「환경윤리-동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존중」, 서울: 민음사, p. 133

그렇다면 노자의 자연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러한 노자의 자연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도덕경(道德經)」을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총 다섯 부분에서 나타나 있고, 그 첫 번째는 「도덕경(道德經)」 25장에서는 자연이 무엇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혼성된 무엇이 천지가 나기에 앞선다. 즉 서로 섞여 이루어진 물이 있는데, 이것이 천지가 생겨나기에 앞선다.

그 적함이며, 요함이며!

홀로 있어 변함이 없고, 하늘 아래 아니 가는 데 없건만 위태로움이 없다.

가히 천하의 어미라 하겠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른다.

지칭하여 도라 하는데,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도라 할 뿐이다.

억지로 이름하여 크다고 한다. 즉 억지로 그 이름을 설명하자면 크다고 한다.

크니 가고, 가니 멀어지고, 멀어지니 돌아온다. 이 말은 크는 것은 곧 간다는 것이요, 간다는 것은 곧 멀어진다는 것이요, 멀어진다는 것은 곧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위대하고,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고, 왕도 또한 위대하다.

세상에 큰 것이 넷 있는데 왕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말은 우주 가운데 네 가지 위대한 것이 있으니 왕이 그 하나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스스로 그림함)을 본받는다.³¹⁾

노자는 도(道)란 사람과 하늘, 땅을 각자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 땅 그리고 사람도 도(道)를 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노자의 자연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근원이자 인간의 본래의 근원이기도하다.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아주 큰 것이라 한다. 그 큰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고,

31) 「道德經」 25장,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무한하다는 것은 끝없이 뻗어 간다는 것이다. 끝없이 뻗어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 큰 도(道)를 본받은 하늘 역시 크다. 이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위대한 하늘을 본받은 땅은 자연히 위대함을 갖게 되며, 또한 위대함을 갖게 된 땅을 본받은 사람 역시 위대해 진다. 결국 위대함의 근원은 도(道)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위대함의 근원인 도(道)는 과연 무엇을 본받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 의문의 답변은 바로 ‘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라고 한다. 여기서 자연(自然)은 산천초목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함’이다. 즉 ‘자연을 본받는다.’라 함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³²⁾ 결국 노자의 자연사상에서 ‘자연(自然)’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최고의 중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노자는 여기서 인간을 자연(自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연(自然)을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써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원론적 관계로 말하고 있다.

그밖에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17장, 23장, 51장, 64장에서 ‘자연’이라는 예가 나온다. 17장과 23장은 인간에 대한 자연함을, 특히 인간이 말을 함에 있어서의 자연함을, 51장과 64장은 만물에 대한 자연함을 그 중 특히, 51장은 인간과 만물의 근원이 도(道)에 대한 자연함을 설명하고 있다.³³⁾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17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다 되어져도 백성들이 모두 한결 같이 일컬어 스스로 그러하다고 한다.”³⁴⁾와 같이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좋은 다스림이 바로 무위(無爲)의 다스림이라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자연함(스스로 함)을 언급하고 있다.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되니 백성들이 입 모아 말하기를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는 뜻이다. 무위의 다스림을 펴는 군주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지도자를 가르킨다. 그는

32) 조근태(1995), 「도덕경」, 서울: 현암사, p. 53~56.

33) 서현주(2001), 「자연의 의미와 생태적 윤리관-노자를 통해 본 생태윤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p. 15.

34) 「道德經」 17장,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쓸데없이 백성들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고, ‘저절로 되게’ 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연과 동격의 경지에 오른 지도자이다. 그런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부른다. 성인(聖人)은 무위의 일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했다. 봄이 되어 만물의 흥하여 무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열매 맺는 가을이 지나면 기력이 쇠진하여 뿌리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이러한 이치를 자연은 한해도 거스르는 법이 없다. 자연의 스스로 굴러가는 이치처럼 정치도 지배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스스로 굴러가야 하는 인(仁)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무위의 다스림으로 그 결과 천하가 태평해도 자신의 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배자가 있다는 것을 알 뿐 그의 공을 알지 못한다. 마치 태양의 광명(光明)이 너무 눈부시고 신비스러운 나머지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치는 아무런 시책도 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시책을 편 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런 통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³⁵⁾

노자는 ‘인간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라고 한다. 그것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23장 첫 구절에서는 “말 없는 것이 자연이다. 그러므로 회오리바람은 아침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쏟아지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천지이다. 천지도 이렇게 오래 계속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³⁶⁾고 하였다. 이 구절은 말 많은 인간과 대조해 설명하는 구절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또한 말을 함으로써 인간은 벗을 만들고, 적도 만들어 소란스런 세상을 만든다. 그러나 자연은 말이 없다. 이 자연이 말이 없다는 것은 자연에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순리라는 뜻이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 온갖 일들을 이루어 내지만 사람들처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하지 않는다. 자연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며, 스스로 계절이 바뀌게 된다. 또한 물도 위에서 아래로 말없이 흘러간다.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없이 움직인다.

35) 진동일(1992), 「노자의 500자 철학 여행」, 서울: 문학세계사, p. 66.

36) 「道德經」 23장, “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 天地 天地尙不能久 而況於人乎.”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51장에서는 “도(道)는 낳고, 덕(德)을 기른다. 만물이 모양을 갖추고 기물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물은 어김없이 도(道)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히 한다. 도(道)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히 함은 이를 명령해 서가 아니며, 항상 자연(스스로 그러함)한 것이다.”³⁷⁾이라 말한다. 도(道)는 우주 만물의 존재 형식에 관한 범주이고, 덕(德)은 그런 도(道)가 구체적인 만물이나 세상에서 작용하는 모습이다. 즉 덕(德)은 만물의 존재 형식이나 운행 원리가 만물에 구체화되고 내재된 성질이다. 그러므로 도(道)는 낳는다 하고 덕은 기른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道)는 우주 만물의 존재에 관한 범주이기 때문이다.³⁸⁾ 그럼 ‘어떻게 만물이 도(道)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히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도(道)의 높음과 덕(德)의 귀함은 벼슬을 얻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저절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만물은 저 스스로 그러하며, 도(道)와 덕(德)이 또한 명령하지 않아도 만물이 저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도(道)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중히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64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리하여 만물은 스스로 그러함을 도와주고, 감히 무엇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³⁹⁾라고 한다. 즉 인간도 만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물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만물의 자연함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도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보고, 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 등 인위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여 실패를 하고 항상 그에 대해 집착을 한다. 무위(無爲)의 성인(聖人)은 감히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여 변화를 의도하지 않아 결코 실패가 없고, 어떠한 것에 대해 집착이 없어 어느 것도 잃지 않는다.⁴⁰⁾ 이 말은 사람의 마음도 만물의 자연함처럼 스스로 그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무위(無爲)의 성질이며 이것이야말로 자연으로의 귀결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노자는 자연(自然)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자연(自然)이라 함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무위의 상태의 자연이라

37) 「道德經」 51장, “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成之 是以萬物 莫不尊道而貴德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 而常自然.”

38) 최진석(2001), 전계서, p. 388.

39) 「道德經」 64장, “以輔萬物之自然 而不敢爲.”

40) 진동일(1992), 전계서, p. 207.

고 볼 수 있다. 결국 노자가 말하는 자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Nature)이라는 서양의 언어로 사용되는 뜻과 거리가 먼 단어 있다. 노자의 자연은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이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형용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인위(人爲)와 유위(有爲)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손되고 오염된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무위(無爲)에 대해 총 10장(2장, 3장, 10장, 37장, 38장, 43장, 48장, 57장, 63장, 64장)에 걸쳐 기술하고 있는데⁴¹⁾ 대표적으로 3장과 37장을 살펴보겠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3장에서는 “무위(無爲)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⁴²⁾라고 말한다. 즉, 무위(無爲)는 인위(人爲)가 없는 완전한 자연 상태에 이르도록 하며, 만물(萬物)이 자생자화(自生自和)하도록 하여 안정되고 자성(自成)하지 못함이 없음을 뜻하고 있다.⁴³⁾ 노자는 굳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목적의식, 즉 인위(人爲)를 버리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自然)의 이치에 맡길 때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37장에서는 “도(道)는 항상 무위(無爲)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⁴⁴⁾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도(道)는 항상 무위(無爲)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말 자체에는 자기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노자의 진리가 숨어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25장에서는 “사람(人)은 땅(地)을 본받고, 땅(地)은 하늘(天)을 본받으며, 하늘(天)은 도(道)를 본받고 도(道)는 자연(自然: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⁴⁵⁾고 했다. 즉, 사람(人)은 도(道)를 본 받

41) 손정연(2009),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한 환경윤리교육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p. 33.

42) 「도덕경」 3장, “爲無爲則無不治.”

43) 조현규(2001), 「동양윤리 사상의 이해」, 서울: 새문사, p. 140.

44) 「도덕경」 37장, “道常無爲 而無不爲.”

45) 「도덕경」 25장,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고, 자연(自然)을 본 받는다. 결국 사람(人)은 도(道)를 본 받고, 도(道)는 항상 무위(無爲)하므로 사람(人)은 무위(無爲)를 본 받는다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이 하는 일이다. 자연은 “아니 하는 일이 없다.”⁴⁶⁾에서 ‘아니 함(無爲)’은 만물을 ‘스스로 그러하게’ 내버려둠을 말한다. 즉, 자연에 대한 ‘사람의 자의적인 지나친 간섭(爲)’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일을 하면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자신감이나 책임감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현대 문명이 가져 온 환경 파괴, 인간 삶의 황폐화, 정치 사회적 모순 등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처럼 인위적(人爲的)으로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위(爲)’를 지향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으나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은 문명으로부터 생겨난 인위적(人爲的)인 불행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무위(無爲)’는 무엇인가를 목적의식을 갖고 인위적(人爲的)으로 하지 않는 것. 즉, ‘인위(人爲)’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기 보다는 ‘스스로 그러함’에 맡길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노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부정하기 위해 바로 도(道)의 자연적 실천성인 무위(無爲)로 나타내었다. 자연은 궁극적 존재의 무주재성(無主宰性)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자기 그대로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노자의 도(道)의 특징은 바로 자연(自然)의 특징이며 자연(自然)은 곧 무위(無爲)인 것이다.⁴⁸⁾ 따라서 ‘무위(無爲)’란 ‘인위(人爲)’ 혹은 ‘유위(有爲)’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스러움을 뜻하고 도(道)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⁴⁹⁾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자의 무위(無爲)를 인간들의 속세의 삶을 포기한 채 자연 속으로 들어가 소박한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결코 노자의 무위(無爲)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무위(無爲)는 곧 무위(無爲)이다. 무위(無爲)의 ‘위(爲)’는 유위(有爲)적이고 조작(造作)적인 도(道)의 흐름에 배치가 되는 사특(私隱)한

46) 『道德經』 37장, “無不爲.”

47) 김하풍(2008), 『빈 마음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서울: 문예출판사, p. 141.

48) 조현규(2001), 전계서, p. 140.

49) 김충렬(1997), 『김충렬 교수의 노장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p. 173.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위선적·거짓인 행위이며 독선적이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행위이다.⁵⁰⁾ 이 ‘위(爲)’의 무위(無爲)는 환경에 대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인간들이 인위(人爲)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무위(無爲)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자연은 나름대로의 생태법칙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생태법칙을 무시하고 자연에 작위(作爲)를 가하기 때문에 생태법칙이 파괴된 것이다.

노자는 천하가 자정(自正)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무위(無爲)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자의 자연은 순수존재와 만물의 운동에 대한 논의였다면, 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이라는 개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천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자연(自然)과 무위(無爲) 양자는 둘이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자연이 도(道)의 운동·변화에 대한 개념이라면 그에 따르는 자연한 행위가 바로 무위(無爲)이기 때문이며, 그 모두가 자화자정(自化自正)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⁵¹⁾ 결국, 노자가 말하는 자연이란 근원으로서의 도(道)가 운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무위(無爲)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행위이며 정지나 마비가 아니라 도(道) 자체의 자존성(自存性)이고 자연성(自然性)이며 자발성(自發性)이다.⁵²⁾

덕(德)의 측면에서 무위(無爲)를 보면, 덕(德)이 있는 사람은 다스려짐 없고, 무위(武威)를 하지 않는 자는 무불위(無不爲)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를 통해 ‘덕(德)이 내재한 사람은 곧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논리를 얻게 된다. 즉 무위(無爲)를 통해서 도(道)를 복귀할 때, 인간의 내재적 상태인 덕(德)을 기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무위(無爲)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무위(無爲)’는 ‘인위(人爲)’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기 보다는 ‘스스로 그러함’에 맡길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즉 노자의 이런 ‘무위(無爲)’는 그의 도(道)와 자연

50) 김용욱(1999), 『노자와 21세기[1]』, 서울: 통나무, p. 131.

51) 조현규(2001), 전계서, p. 141.

52) 김길환(1981), 『동양윤리사상』, 서울: 일지사, p. 175.

(自然)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무위(無爲)’란 ‘인위(人爲)’ 혹은 ‘유위(有爲)’와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스러움을 뜻하고 도(道)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⁵³⁾

노자는 자연(自然)을 천지만물의 움직임으로 보았고, 무위(無爲)는 인간의 움직임으로 보았다. 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의 원리가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自然) 무위(無爲)는 의미상 구별이 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한다. 즉 자연(自然)은 진리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면, 무위(無爲)는 인간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⁵⁴⁾ 그리하여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은 현대인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환경위기의 주요인은 바로 인간의 과욕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46장에서는 “화는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허물은 가지려는 욕심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함을 아는 만족함은 항상 만족스럽다.”⁵⁵⁾라는 내용처럼 인간의 과욕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과욕을 절대 금물이라 강조한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두면 인간들도 환란이 없음은 기정사실일 것이나, 과욕으로 인해 점점 질서가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⁵⁶⁾

따라서, 무위(無爲)를 통해서 도(道)로 복귀할 때, 인간의 내재적 상태인 덕(德)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무위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 행위를 요구한다.

3. 도덕과 무위자연의 환경윤리적 의의

53) 김충렬(1997), 「김충렬 교수의 노장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p. 173.

54) 노승만(2000), 「노장의 자연철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p. 47.

55) 「道德經」 46장,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 常足矣.”

56) 손정연(2009), 전개서, p. 34.

최근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과학기술들을 동원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도덕경(道德經)」을 통해 나타나는 노자의 자연사상의 환경윤리적 요소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연과는 분명히 다르다. 현대의 자연에 대한 의미로는 인간을 빼오로지 천지(天地)나 만물(萬物)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만물(萬物)이라는 말은 인간도 포함하고 있어 현대적인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서구사상과는 달리 만물이라는 개념 속에 인간이라는 하나의 요소적인 존재로써,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원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전체 자연의 흐름 속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며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다.⁵⁷⁾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는 ‘무위(無爲)’는 주로 인간사에 대한 가르침이었지만, 이 정신을 자연에 적용한다면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환경위기에 있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경위기는 결국 인간이 자연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그러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간섭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자연의 파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현대인들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족한 땅을 넓히기 위하여, 산을 허물어 그 흙과 바위로 바다와 습지를 메워 국토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지형 변형의 결과 군락지(群落地)들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양오염이나 생태계들이 파괴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 있는 무위(無爲)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정복하려 하지 말며,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뜻한다.

노자의 자연사상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도(道)’에서의 자연은 환경윤리나 생태중심주의의 생태철학 등의 중요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道)의 인

57) 안중수(2006),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주), p. 209~213.

식론적 환경윤리는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고 그 동안 인간의 이성에 대한 힘만을 믿고 행해왔던 도구주의적 문명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인식론적 의미의 도(道)는 인간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해 준 이성에 대한 비판이고, 이(理性)는 곧 인간을 만물의 으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노자의 자연사상 속에 있는 인식론적 의미의 도(道)에서 나타난 이성의 비판은 결국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이는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존재론적 의미의 도(道)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존재론적 의미에 나타난 환경윤리는 인식론적 의미에 나타난 환경윤리를 포함하고 있다.⁵⁸⁾

환경윤리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의 도(道)에 나타난 환경윤리를 정리⁵⁹⁾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자의 도(道)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함의하고 있다. 노자는 이와 같이 도(道)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모두 크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 사물들이 모두 도(道)에 그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이들은 상호 간에 비(非)단절적인 연관 관계를 지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을 한다. 그리고 소통 방식은 단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본받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현상적 사물의 단계적 위계는 가치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성격인 것이다. 이들의 연대는 자연적 질서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물들 간에 존재의 우열을 말할 수가 없다. 노자는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25장에서는 “사람(人)은 지(地)를 본받고, 지(地)는 천(天)을 본받고, 천(天)은 도(道)를 본받고, 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⁶¹⁾는 것은 결국 사람(人)과 땅(地)과 하늘(天) 그리고, 도(道)는 차단되어 통하지 않는 구조를 지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인 상생관계로 연계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의 관계가 서로 단절되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이 서로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들은 서로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 환경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간과 자연을 이분화하여 자연을

58) 박덕인(2004), 전계서, p. 112.

59) 박덕인(2004), 전계서, p. 112~114.

60) 박이문(2002), 「환경철학」, 서울: 미다스북, p. 34~35.

61) 「道德經」 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오로지 정복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본 이분법적 사고관임을 감안 할 때, 노자의 자연관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인 일원론적 사고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간 중심을 벗어난 탈인간중심주의를 함의하고 있다.⁶²⁾ 오늘날 지구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인간중심적으로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손되고 오염된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3장에서는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⁶³⁾라는 말처럼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생태법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생태법칙을 무시하고 자연에 작위(作爲)를 가하기 때문에 생태법칙이 파괴되어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변화를 인간들이 한 순간에 바꿔 놓고 있으니 환경위기는 그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욕망·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순한 자료나 도구가 아니다. 도구주의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관의 의해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인 노자의 자연사상을 말한다. 이 노자의 자연사상 속에 있는 ‘도(道)’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탈피할 수 있는 근거로 보여지고 있다.

셋째, 노자의 자연사상은 도(道)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환적 세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관계망 속에서 서로 “관계”로서 이해한다.’는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모든 사물이 관계가 지워졌다는 이야기는 곧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원인 역시, 바로 이런 자연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며, 이런 관계 속에 인간도 함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⁶⁴⁾ 즉 환경위기 중 생태계의 파괴로 상당수의 생물종들이 멸종해가고 있는 지금, 그런 동·식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 계속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노자의 도(道)에 대한 환경윤리적 의의를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물은 유

62) 노승만(2000), 전계서, p. 77~80.

63) 「道德經」 3장, “無爲則無不治.”

64) 박덕인(2004), 전계서, p. 112~114.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모든 사물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밟고 올라서야하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서구적 세계관으로 자연도태,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의 말로 자연의 세계를 법칙화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장(場)으로만 여겨왔다. 이에 경쟁과 대립의 개념으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초래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제 자연에 대한 그 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67장에서는 “나는 보배가 셋이 있어 그것을 지니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이고, 둘째는 검소함이고, 셋째는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다. 자애로우니 용기를 낼 수 있고, 검소하니 너그러울 수 있고,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으니 영도자가 될 수 있다. 자애를 버리고 용기를 내거나, 검소함을 버리고 너그럽거나, 뒤에 섬을 버리고 앞서면 죽음이다.”⁶⁵⁾라는 말처럼 “자애”는 “용기”를, “검소함”은 “너그러움”을, 그리고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은 “영도자됨”을 가져오고, 이런 “세 보배”가 없으면 오히려 “죽음”을 의미한다고 단언한다. “자애”가 없는 “용기”는 폭력을 낳고, “검소함”이 없는 “너그러움”은 곡창을 털고,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 없는 “영도자”는 전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세가지 보배 중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지녀야 할 환경윤리적 덕목은 바로 ‘검(儉)’이라는 덕목이다. 이 검소함(儉)으로 너그러울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욕망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욕망으로 생기게 된 자본주의도 직·간접적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욕망에 의한 끊임없는 충족을 사회적 제도 및 체제하에서 승인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병폐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적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노자는 인간세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성(德性)은 바로 그침

65) 「道德經」 67장, “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能成器長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止)이라고 말한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44장에서는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⁶⁶⁾라는 말처럼 욕심 없는 자만이 현재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침(止)이란 ‘절제’의 의미인 것이다. 노자는 문명을 비판했지만 부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문명을 부정했다면 ‘그침(止)’이나 ‘족함(足)’을 알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쓰지도 않는데 절제나 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환경 윤리적 덕목으로 ‘검(儉)’의 의미는 자연을 삶을 위해 쓸 수 있되, 그 정도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위기인 인류 자원의 고갈 문제는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앞서서 유한한 자원의 남용은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그침(止)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검소나 겸손함을 미덕(美德)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수양을 통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온갖 편리함과 화려함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침(止)은 결국 ‘검(儉)’이라는 덕(德)을 쌓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노자의 자연사상에서는 온 세상 만물을 자(慈)로서 배려하면서도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검(儉)’을 지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앞서고자 하는 욕망, 배타적인 이익을 선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극단적으로 제도화되어 산업문명이 진보의 개념인 양 우리의 인식 속에 고착화 되어버린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생명체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생존 방식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인류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지식과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의 구조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노자는 이에 조화(調和)와 공생(共生)을 위한 그릇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謙遜)’을 취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환경윤리적 덕목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노자의 자연사상에서는 환경 윤리적 규범으로서 덕목을 선정할 수 있

66) 「道德經」 44장, “知足不辱 知止不殆.”

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윤리적 덕목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무위(無爲)’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과 대립의 현대 사회의 구조에서 그가 말하는 무위(無爲)의 실천 내용은 환경윤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⁶⁷⁾

자연속의 요소인 인간은 영원한 삶은 없다.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위해 작은 이익을 갖고자 하면서 자연(自然)의 이법(理法)을 거스리는 현대 사회는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를 행하고 욕망을 절제하여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자연이법(自然理法)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전체로 통찰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작위(作爲)하지 않고 도(道)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하나의 요소로써 살아가는 현명한 가르침을 알고 환경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67) 박덕인(2004), 전계서, p. 114~116.

Ⅲ. 현행 중학교 환경윤리교육의 실태와 과제

1. 환경교육 전반

환경윤리교육은 환경에 대해 지식과 인식을 갖춘 시민을 계발하는 통합적 학문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식과 인식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유발된 환경위기를 해결하는 토대인 동시에 이들 환경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가치 갈등과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도록 가치관을 양성하는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을 포함한 성인들의 대부분은 환경윤리교육이 지식, 가치, 태도, 기능 등을 통합적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 과정을 치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⁸⁾

지금까지 중등학교의 도덕·윤리교과는 주로 중학교 수준에서 환경윤리의 범주와 환경보전의 범주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고, 인공 환경 범주의 내용도 있었다.

사회교과에는 환경위생과 환경윤리의 범주를 제외한 모든 범주가 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교과에서는 특성상 주로 자연환경 범주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었고, 환경오염 및 자원, 에너지 범주도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또한 환경보전 및 인구 범주의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체육교과에서는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가정·학교 및 지역 사회의 환경보건을 이해하기와 같은 환경위생 범주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인구문제와 건강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기와 같은 인구 범주의 내용도 포함하고

68) 남상준의 4인(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 원미사, p. 20.

있었다.⁶⁹⁾

그리고 중등학교의 교과서 내용 가운데 환경교육의 내용 분석결과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습목표별 비중이 지식, 기능, 태도, 감수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7 : 5 : 4 : 1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인지적 요인 대 정의적 요인으로 묶어서 환산하면 2.5 : 1로서 인지적 요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학년 간 차이 없이 지식목표가 최상위이며, 감수성 목표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⁷⁰⁾

전반적인 환경윤리교육에 대해서 학교 환경윤리교육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환경윤리교육은 1960년대 후반에 현저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이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48년 국제자연 및 천연자원보존연맹 설립 총회에서 토마스 프리처드(Thomas Prichard)가 언급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0년 의회에 제출한 환경문제 백서에 구체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1970년에 국제 자연보호연맹이 UNESCO의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72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고 ‘인간환경선언’ 및 ‘인간 환경에 관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⁷¹⁾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태동기(1980년 이전), 성립기(1981년-1991년), 정착기(1992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태동기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일반 국민들도 그 심각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자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국가정책은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라는 대명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므로, 다만 간헐적으로 전개되는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자연보호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대국민 홍보의 수준인 환경에 대한 교육, 즉, 말 그 자체로 환경교육에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69) 최석진(2000), 「교과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 서울 : 환경교육과정평가원, p. 16.

70) 남상준외 4인(1999), 전계서, p. 75.

71) 김귀곤(1995),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 대구 : 배영사, p. 25.

대한 국민의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 내거나 설득력을 지닌 체계를 가지지 못한 시기이다. 72)

학교 환경윤리교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성립기인 1980년대 초반으로 그 동안의 환경윤리교육은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기존 교육체계에 사후적으로 편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환경청이 발족되었고, 이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함으로써 환경윤리교육도 하나의 발전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으며, 1981년 문교부 장관령으로 고시된 시행령 제 4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윤리교육이 각 교과별로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자연보존, 환경오염, 인구문제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환경윤리교육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관련교과의 목표와 내용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도 ‘환경윤리교육은 교육 활동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되 관련교과에서 강조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분산적 접근을 위해 환경윤리교육의 실천을 더욱 강조하였다.⁷³⁾ 그러나 분산적 접근으로 인해 서로 연관성이나 체계성이 없어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어떠한 체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고, 이론위주의 지식교육이 주가 되어, 실천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부족하였다.

정착기는 1992년도부터 시작된 제 6차 교육과정기간 중 중학교 환경윤리교육은 변화가 본격화 되었다. 중학교에서는 환경이라는 독립과목을 신설, 주 1~2시간(연간 34~68시간) 씩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한문·컴퓨터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었다. 처음 실시되던 1995년에는 전국 2,645개 중학교 중 1.9%인 51개교가 선택하였으며, 2000년 현재 전국 2,741개 중학교 중에서 환경을 선택한 학교는 341개교로 12.4%를 차지하였다.⁷⁴⁾

제 7차 중학교 ‘환경’ 과목은 제 6차 환경윤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과도한 학습내용을 축소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으로 조정하되 인문·사회·과학

72) 최수자(2004),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철학적 지향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p. 36.

73) 최석진(2000), 「교과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 환경교육과정평가원, p. 49 ~ 50.

74) 환경부(2000), 「환경백서」, 환경부, p. 116.

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내용 선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환경윤리교육 내용과 인지적 영역 중심의 고등학교 환경윤리교육과의 계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용을 배열하고자 하였다.⁷⁵⁾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 중학교에서는 환경·한문·컴퓨터 중 1과목을 선택, 주 1~2시간(연간 34~68시간) 씩 강의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주 1~3시간(연간 34~102시간) 씩 1개 학년에서 주당 1~3시간을 수업하거나, 3개 학년에 걸쳐 주당 1~3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⁷⁶⁾

도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윤리의 이론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적용방법을 위해 지구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실천가능한 자신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또한 환경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기술 하고 있다.⁷⁷⁾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환경윤리의 이론화와 함께 실천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적용방법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실천가능한 자신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삶 혹은 녹색 생활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기술 하고 있다.⁷⁸⁾

75) 박태윤 외 5인(2003), 「환경교육학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p. 37.

76)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환경」, 교육인적자원부, p. 324.

77)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도덕과」, 교육인적자원부, p. 43.

78) 교육과학기술통(2011),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도덕과」, 교육과학기술통, p. 26.

2. 도덕과의 환경윤리교육

먼저, 도덕과의 환경윤리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많은 학교 재량선택 과목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환경’ 교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⁹⁾

첫째, 환경 과목의 목적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와 인간에 의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지식과 기능, 환경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함양하며, 환경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환경 감수성과 환경 소양을 길러 자연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지향하며, 환경 친화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지속 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환경 과목의 주요 내용은 환경과 나의 관계,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서의 환경의 구성 요소, 자원과 에너지,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환경 보전의 실천 등이다.

셋째, 환경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여러 교과목에 포함된 환경 교육적인 내용의 이론적인 학습이나 다른 도구적인 교과목의 학습보다는 경험적이며, 실천적, 행동적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넷째, 환경 과목의 학습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 활동 영역,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혼자서 쉽게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사, 현장 학습, 실험, 사례 연구,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실천이 이루어지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경 과목은 다학문적, 간학문적,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환경 관련 교과와 학문들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범교과적으로 접근하여 환경을 주제로 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사의 강의 위주로 환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체험 활동을 통

79)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환경」, 교육인적자원부, p. 294 ~ 327.

해 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면서 환경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실천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교육에서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 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환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의 수도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연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공통교과인 도덕교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개정안에서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 환경윤리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도덕 교과는 중학교 도덕 1, 2, 3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환경윤리 관련 내용은 중학교 도덕 1학년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⁸⁰⁾의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와 쟁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전 지구인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의 문제를 윤리·도덕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판단능력과 실천 성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환경 윤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덕과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 공통 기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개정 내용 중 성격에서 보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접근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독립적인 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도덕과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서 윤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의 재천명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교육의 접근 방법으로서 “도덕은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 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규범 과학적 관점과, 사회 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민 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함으로써 인접 교과와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게 된

80) 교육과학기술부(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도덕과」, 교육과학기술부, p. 171 ~ 253.

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축으로 하되, 일반 철학, 교육학,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 등 관련 학문의 다양한 접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도덕과의 내용 중 환경윤리교육 부분에 관련된 내용적 특성을 보면 나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분류하여 이 관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도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자면, 환경에 관해서는 사회과나 과학과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혹은 사회 정책적 지식보다는 환경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도덕과는 규범적 및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도덕과의 교과 목표를 보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인격적 타자와의 관계 범위 너머에 있는 존재, 즉 자연이나 초월적 존재와 관련하여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자연이나 숭고하고 성스러운 존재 또는 초월적 존재 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도덕과의 학년별 내용 중 환경윤리교육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7학년인 중학교 1학년 내용인 환경과 도덕에서 영역 설정의 의의는 신화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문화사의 초기 시대에는 인간과 그의 삶의 터전이 미분화(未分化)된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이러한 신화적 사고를 벗어나 세계를 대상화하고 인간 자신을 삶의 주체로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대상 세계를 통제하고 조작, 운영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급격히 증대된 근대 이후,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인간 중심적 사고에 점차 매몰되어 왔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 그리고 세계는 단지 그의 삶을 위한 수단적 재료요 기껏해야 그가 극복해야 할 제약적 여건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왔다. 이러한 생각은 과학과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급기야 이 기술의 발달은 거꾸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삶의 총체적 기반인 자연환경의 파괴는 현대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정신적·문화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신체적·자연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신체를 토대로 이루어지듯 인간의 문화적 활동도 자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적·자연적 여건이 인간의 삶에서 더 근본적이고 일치적인 여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인간이 성취해 온 고도의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의 근본적 토대인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자연의 보존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의 삶의 문제이다.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여 인간 삶의 기반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할 때에는 온전히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외부의 자연을 단순한 물질적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터전으로 보도록 관점을 심화시키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이를 위해 자연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삶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원숙한 단계에 이르게 됨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1학년 환경과 도덕부분 내용인 첫 번째 중간 주제인 환경과 인간의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하위 주제는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관련성과 환경 파괴의 실상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덕적 의미로 구성 되어 있다.

주제 설정의 취지는 환경 문제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근원적이고 중대한 것 인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환경과 인간의 삶이 내면에서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 주제를 설정한 근본 취지이다. 그래야만 ‘환경 윤리적 규범’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 규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길러질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학생들은 환경이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주는지,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학습 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에서는 환경 문제를 단순히 유용성의 차원에서 인간 중심으로 고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연 자체의 본래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문화 보편적, 우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숭고한 이상을 품게 한다. 이러한 초월적 지향 작용 속에 도덕의 완성이 기대됨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요 교수·학습 내용은 환경이란 일차적으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터전은 인간의 삶을 정초해 주면서 동시에 제약하기도 한다. 즉 이 터전은 순전히 수동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그 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조건 지우고 경우에 따라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환경을 지배만 하려 한다면 환경의 반격을 받게 되는데, 현대의 환경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환경이 그 나름 고유한 생태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자연의 진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로서 이 생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연적 존재임을 고려할 때 환경이라는 삶의 터전은 인간의 삶 연장이요 인간의 삶과 얽혀 있는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환경의 반응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형성해 낸 문명적 장치가 자연적 환경의 제약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문명적 장치도 종국적으로는 자연의 수용과지지 안의 범위에서만 그 역할을 다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환경이 인간의 총체적인 삶 자체와 유리될 수 없음을 각성하게 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문화/문명의 토대가 곧 자연이라는 문화 철학적인 명제이다. 흔히 문화/문명을 자연 상태에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인간은 이 자연적 야만상태를 벗어나고 넘어서서 문화적 존재로 고양될 때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성취하고 실현한다는 주장장을 한다. 이 주장은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은 것이나, 그렇다고 인간의 문화/문명을 형성하려면 다름 아닌 자연을 토대로 하고 재료로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자 문화적 존재’이다.

삶의 터전인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인간의 삶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일

이다. 인류는 이제 더는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 윤리는 전시대에 없던 새로운 윤리요, 그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 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환경의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주는지, 그 불행이 다른 파괴와 어떤 점에서 더 심각한지를 이해하게 한다. 곧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차세대와 관련된 문제이고, 익명적 특성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그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게 한다. 나아가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학습하게 한다.

교수·학습상의 유의해야 할 점은 환경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아가 환경 문제를 일방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보아 환경의 도구적 가치만 주장하지 않고, 생태학적인 관점도 받아들여 환경의 내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서양 사상을 환경 파괴의 배경으로 기술하고, 동양의 사고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등의 단순한 이분법도 삼간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1학년 환경과 도덕부분 내용인 두 번째 중간 주제인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에선 지구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을 찾아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 분석한다.

하위 주제는 지구 생태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들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 평가,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설정의 취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문화 철학적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윤리적 규범의 당위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면, 지속적인 문화 발전과 이를 위한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생활 태도가 바람직한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활 태도를 ‘환경 친화적 생활 태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은 이러한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의 유래와 그 기여 및 폐해를 생

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탐색함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본주의적) 관점과 자연 중심적(생태주의적) 관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제는 학생들이 환경 친화적 생활 태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그 구체적 행동 규범을 찾아 실천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 교수·학습 내용은 근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도래한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의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이해한다.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 대중문화의 확산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경제 체제 정착, 신체가 요구하는 물질적 충족이 곧 선이라는 개발 지상주의 등을 이해한다. 인간의 신체적·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선이라는 이 근대적 생활 태도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발생시켜 왔는지를 이해한다. 인간의 욕구는 동물의 그것과 달리 자연적 본능에 의해 한정지어져 있지 않으므로 더 많은 소비를 촉발하게 되고 새로운 소비 상품을 개발하게 한다. 이는 자연히 자연 자원의 소모를 과도하게 하고, 결국 자연적 환경 상태를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 자연 고갈,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나는 인류적 삶의 위협 요소가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물질주의와 개발주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평범한 물질주의적 생활과 친환경적 생활 방식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생활 속에서 이들 간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 자극을 준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만으로는 환경 문제의 극복 방안이 나오기 어려움을 깨닫고 생태주의적 관점의 적합성,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 두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을 조화시킬 제3의 견해를 모색해 본다.

교수·학습상의 유의해야 할 점은 환경 문제를 다룬다 하여 인류 문명의 발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균형을 갖춘 문명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원 소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현 세대가 양보한다는 도덕적 태도가 요구됨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삶의 단위를 개인에서 친분 있는 작은 공동체로 확대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친분 없는 익명적 존재에 대하여 인간적 동류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종국에 가서는 인류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음으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⁸¹⁾의 성격을 살펴보면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인간과 사회,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앎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이를 위해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판단능력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지구적 차원의 환경 위기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원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덕과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 및 국가 정체성 확립과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지구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과는 학생들이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 능력과 적극적인 실천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년군별(중학교 1~3학년) 성취기준을 보면, 바람직한 가치·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 우리·타인, 사회·국가·지구공동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깨닫고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며, 도덕적 주체로서 책임 있게 행동한다.

영역 성취 기준을 보면, 자신과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함양하고, 우주적 또는 초월적 가치의 지평에서 이상적 삶을 설계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 및 사회를 도덕적으로 성찰하려는 태도를 지

81)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도덕과」, 교육과학기술부, p. 1 ~ 31.

닌다.

학습내용별 성취 기준을 보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부분에서 중간 주제인 환경친화적인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본다. 또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삶 혹은 녹색 생활 실천 역량을 함양한다.

하위 주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설정과 산업화 및 도시화와 환경 파괴 문제, 우리들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 평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천에서 녹색 생활양식과 녹색 소비를 한다.

위 내용처럼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중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도덕 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윤리교육에서 지식이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윤리교육에서는 환경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해에 기초하여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활동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가치와 신념 등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덕 교과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보다는 가치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많이 다루고 있으나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교과 시간이 중학교 1·2·3학년 내용을 한 학년이나 2개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2·3학년 과정 중 환경윤리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도덕과 교육의 현실이다. 인성과 가치관은 정확한 시기에 가르쳐야 만이 더욱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가 제 7차 교육과정에서까지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인 8종 도덕 교과서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2013년부터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으

로 새롭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할 예정에 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나 반면에 정착도 되기 전에 바뀐다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제대로 환경윤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도덕과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과목 특성상 지식 전달 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까지 함양 시켜야 하는데,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집중이수제로는 도덕 교과목이 명목상 존재한다는 것과 도덕 교과목의 특성이 없는, 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식의 교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알맞은 시기와 시간을 통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은 환경위기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도덕 교과에서는 환경위기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탐구 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활동과 연계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인지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환경윤리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제 4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지금까지 환경윤리교육에 대해 많은 시도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의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 차원에서 전개되는 환경윤리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⁸²⁾

첫째, 교육 내용의 설정에 있어서 대체로 과학 기술적,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조적 처방보다는 기술 공학

82) 최석진 외 22명(2002), 「21세기 한국의 환경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p. 42 ~ 43.

적 접근을 강조하거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인구 문제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현상화 된 측면으로 한정하고, 환경 문제의 실상을 공동체의 붕괴나 사회내의 갈등 관계 등이 제외된 환경 오염 등으로 협소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 체계화가 미흡하고 학년 간, 교과 간의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년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많은 영역 중 일부분만이 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학년에 올라감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환경윤리교육의 방법론은 체험 중심의 현장 학습, 조사, 토론 학습 등이 중요하다. 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중학교에서는 환경윤리교육은 일부 특별 활동의 부서, 소수 환경반 학생들의 분리수거운동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환경 의식이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든지, 환경 보호 운동을 직접 실천하도록 이끄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경 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여러 교과에서 환경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교과는 도덕교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학생 스스로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관 형성과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환경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환경윤리교육은 환경 윤리의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서야 환경윤리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환경 문제를 도덕, 윤리의 틀 속에서 환경 윤리로서 다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올바른 환경윤리교육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경윤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중학교의 수준에서 환경윤리교육이 여러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

러나 각 과목끼리 연계가 부족하고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목을 신설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중학교에서 환경윤리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그 대안으로 공통교과목인 도덕과가 환경 과목을 대신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도덕과가 환경윤리교육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보다는 가치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많이 다루고 있어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노자가 자연의 섭리에 인간의 욕망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자연 친화적 인식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경쟁적 이익추구와 욕망충족에 대하여 반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이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과제이다.

노자는 자연을 이용과 파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자연이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고 하였다. 즉, 자연을 인위적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경쟁적 이익 추구하고 욕망충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위(無爲)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인위(人爲)와 유위(有爲)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세 번째 과제는 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연구가 과제이다. 환경윤리교육은 개인윤리적 접근과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환경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위기의 기본적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주입식 강의 위주로 환경윤리교육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를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환경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능력과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환경윤리교육은 단순히 인지적인 환경지식만을 가르치고 외우기 중심의 교육이 아닌 노자가 말하는 도(道)의 실천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가운데서 흘러 나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내면화되어 스스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과에서도 환경부분이 1학년에 집중되어 있어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과제이다.

현재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교과 시간이 중학교 1·2·3학년 내용을 한 학년이나 2개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2·3학년 과정 중 환경윤리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도덕과 교육의 현실이다. 인성과 가치관은 정확한 시기에 가르쳐야 만이 더욱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도덕과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과목 특성상 지식 전달 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까지 함양 시켜야 하는데,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집중이수제로는 도덕 교과목이 명목상 존재한다는 것과 도덕 교과목의 특성이 없는, 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식의 교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알맞은 시기와 시간을 통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IV. 노자의 자연사상에 기초한 중학교 도덕과 환경윤리교육 방안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위기에 대해서 그 해결방법과 대응책을 논함에 있어 교육적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은 교육적 처방이야말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역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화로운 최선의 길을 제시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듯이 환경윤리교육은 그 특성상 미래의 관심사이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 즉 인간이 자연과의 유대감을 거부하고 자연을 거스르고 지배하고자 하는 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경윤리교육을 통해 현재의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환경윤리교육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현재의 과제인 환경위기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청소년 환경윤리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⁸³⁾

첫째, 생태학적 위기를 올바로 인식하여 생태계 위기를 가져온 가치 구조의 변환을 요구한다. 둘째, 서양의 과학주의적 환경 해결 방안이 도달한 한계를 지우자, 자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동양의 자연주의적 생명의 틀로써 제시한다. 셋째, 홀리스틱 접근으로 인간과 자연과 관계를 재정립하여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홀리스틱(holistic)세계관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넷째,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환경 친화적 행태'로 규정하고 환경적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환경윤리교육의 기본방향에 나타난 것처럼 바람직한 여러 환경윤리교육의 교

83) 최석진 외 22명(2002), 전제서, p. 255 ~ 257.

육적 방안들 중 근본적 문제인 인간들의 인간중심적인 사상 즉, 자연을 항상 인간의 필요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겸허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⁸⁴⁾ 이런 의미에서 동양적 자연사상은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자연에 대한 인식의 확립

지금까지 살펴본 노자의 자연관에서의 환경윤리적 관점은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 주는데, 특히 노자의 주된 사상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이를 이용, 파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자연이법(自然理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그 예로서 인간들의 생활을 위한 삶의 영역인 땅을 넓히기 위해 바다의 갯벌과 습지들을 매립하여 자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생태계 파괴 및 바다 오염 등을 한 층 가중시키고, 열대우림지역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하여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정화하는 순환작용을 단절시켜 지구 온실효과가 발생, 지표상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내륙지방은 건조해져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황사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반면 지구 온실효과로 인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상당히 많은 양이 급속도로 녹아 현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온실효과의 영향을 받아 녹아 내려가고 있다.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수몰될 위기까지 처해 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72장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욱 큰 두려움이 이를 것이다. 즉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해로움이 생길 것이다.”⁸⁵⁾ 라고 했다. 인간은 자연이법(自然理法)을 따르지 않고 인간 자신

84) 조현규(2002), “노자 자연철학의 환경윤리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제 21집, 한국교육철학회, p. 211.

85) 「道德經」 72장, “民不畏威 則大威至.”

만의 편리함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인간이 천지만물의 일부분인 한 그 결과는 인간의 파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인간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37장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고요히 있게 되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⁸⁶⁾와 같이 인위적인 작위(作爲)를 하지 않고 자연이법(自然理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자연과 조화로워야 한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이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인간들은 자연(自然)의 이법(理法)에 따라 행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자의 자연관은 이렇게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로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 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자연은 우리의 도구이며, 이용 대상일 뿐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은 자연과의 부조화(不調和)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파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서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그들의 머릿속에 인간 대 자연이라는 대결구도를 심어 넣었고, 이렇게 굳어진 가치관은 자연을 인간에게서 밀어내게 만들었다. 하지만 노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있어,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을 부정하고, 또한 모순으로 보았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25장에서 “사람(人)은 지(地)를 본받고, 지(地)는 천(天)을 본받고, 천(天)은 도(道)를 본받고, 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⁸⁷⁾고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연을 본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노자의 자연관인 인간과 자연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여기고 있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나타낸다.

현재 환경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현대문명 생활을 모두 버리고 원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인간만이 위대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생

86) 「道德經」 37장, “不欲以靜 天下將自定.”

87) 「道德經」 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각을 버리고 인간이 자연(自然)의 이법(理法)에 따르며 자연과 함께 공존(共存)해야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노자의 자연관이 말하는 “자연과의 공존”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인위적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윤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다면 더욱 이해가 쉬워질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심도 있는 환경윤리의 이론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환경윤리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의 장이란 환경윤리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실내 보다는 야외공간에 위치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환경윤리교육에서의 야외 환경윤리교육은 환경태도와 가치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며, 야외 캠핑체험, 또한 환경 태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체험학습은 무엇보다도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의 장을 통한 환경윤리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환경에 대한 자기환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자기환경화란 환경과의 의도된 물리·심리적인 접촉을 통해 비자기환경을 자기환경으로 인식하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과정 혹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장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은 이러한 자기환경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환경 상 야외 환경윤리교육과 야외 캠핑 체험, 그리고 현장체험 학습을 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고교 입시라는 부분 때문에 체험 학습보다는 입시 위주의 이론학습에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교외활동 학습이라는 야외 체험학습(소풍)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학년에는 인성수련(1

학년 야영 활동), 도외 체험학습(2학년 수학여행), 야외 체험활동(3학년 야영 활동)을 통해 야외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한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자연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사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주장했던 노자의 자연사상에서 나타난 자연과의 일원론적 관계와 자연이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각 학년 야외체험학습 시간에 개발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제주 석회암 동굴과 제주 해변 등을 탐색하여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를 접하고, 자연과 개발이 서로 친화적인 상태인 곳인 제주 올렛길과 한라산 숲길 등을 탐색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의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고 학생 본인이 얼마나 자연에 대해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을 직접 봄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인 알맞은 소비생활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연이법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이고 뜻 깊은 활동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2. 무위자연(無爲自然) 덕목의 체득

노자의 자연관에서의 무위(無爲)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 즉,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인위(人爲)와 유위(有爲)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손되고 오염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위(無爲)의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무위(無爲)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여러 행위. 즉, 당위로서의 행

위를 요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8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겨루지 않는다. 못사람이 꺼려하는 곳에 처한다.”와 같이 상선(上善)을 물(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⁸⁸⁾ 물(水)은 모든 생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육의 근원이다. 그러면서도 아무와도 경쟁하지 않고, 전혀 사심도 없으며, 아무도 있기를 꺼려하는 곳을 찾아 간다. 이것이 물(水)의 덕행(德行)이며 이를 가리켜 노자는 상선(上善)이라 말한다.

또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28장에서는 “그 남성성을 알고 그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언제나 덕이 떠나질 않아, 어린아기의 단계로 되돌아간다. 그 백성을 알고 그 흑성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언제나 덕이 어긋나질 않아, 한계가 없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이 된다. 천하의 골이 되면 언제나 덕이 곧 족하게 되어, 질박한 통나무로 되돌아간다. 통나무가 흠어지면 그릇이 된다. 성인은 그 통나무의 이치를 써서, 통치자 노릇을 한다. 그러므로 큰 통치는 가르치지 않는다.”⁸⁹⁾ 으로 세가지인 ‘복귀어영아(復歸於嬰兒) 복귀어무극(復歸於無極) 복귀어박(復歸於樸)’의 무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무위(無爲)를 구체적으로 실천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복귀어영아(復歸於嬰兒)는 유약(柔弱)을 강조, 어린 아이를 비유하여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자고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되자라는 뜻이 아니라 가식(假飾) 없이 순수하며 억세지 않고 부드러우며,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즉, 유약(柔弱)과 같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여 유약(柔弱)이 무위(無爲)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 복귀어무극(復歸於無極)은 무극(無極)을 돌아가는 의미로 여기서 무극(無極)이란 극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양극의 대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이런 극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

88) 「道德經」 8장,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89) 「道德經」 28장,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式 常德不忒 復歸於無極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大制不割.”

셋째, 복귀어박(復歸於樸)은 현대 환경윤리에서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인 소박(素朴)을 말하고 있다. 노자는 도구적 문명관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소박(樸)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즉 소박한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여기서 박(樸)이란 나무등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인위가 가미되지 않는 소박성을 지시한다. 노자는 인간이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한 것은 순박한 경지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는 허례(虛禮)와 꾸밈, 그리고 기교 등을 거부하는 것. 즉, 적극적으로 소박성의 세계를 획득하지 않으면 허례와 꾸밈, 그리고 기교라는 악덕(惡德)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에 철저하게 거부하는 명제이다.⁹⁰⁾

따라서, 소박(素朴)을 따라 지키고, 욕심을 적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소박(素朴)은 문명의 형식과 허구를 버리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본래 상태인 무위(無爲)를 행해 자연(自然)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경지가 곧 성인의 경지이며, 도(道)에 합치된 이상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가치인 것이다. 노자의 자연사상에 함의되어 있는 과욕을 억제하고, 소박으로 회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 학습 전략의 수립과 시행

환경위기는 총체적인 문제이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점에서 당장 실천해야 하는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개인윤리적 접근으로 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당위에 직면하게 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환경윤리 교육이다.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주체들로 하여금 환경위기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길러

90) 김길환(1981), 「동양윤리사상」, 서울: 일지사, p. 166~167.

주는 환경윤리교육만큼 확실하게 환경문제의 해결을 담보해 낼만한 장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경문제는 그것은 공학적 문제임과 동시에 윤리적 문제이고, 개인적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환경문제가 지니는 총체성을 전제로 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의 환경윤리교육은 당연히 통합적 접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선 학문적으로는 인문·사회과학이 바탕이 되고, 환경문제를 측정하거나 실제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환경공학의 도움으로 환경학이 성립될 수 있다. 환경윤리교육은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통합적 접근이 기초가 된다.

환경윤리교육은 이처럼 지식, 가치 및 태도, 기능을 통합한 교육이어야 하기에 단순히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환경오염의 기술공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환경윤리교육은 자연, 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⁹¹⁾ 또한 다른 환경 교육적 접근이 통합될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환경윤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위기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환경위기를 본질적으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교육적 접근이 중요시 되는 이유⁹²⁾ 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이한 관점을 통합하는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깨어있는’ 대중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즉 우리는 인간의 편리와 이익만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

91) 진교훈(1998), 전개서, p. 228.

92) 한국교육개발원(1994), 「환경탐구시리즈」, 서울: 삼화출판사, p. 9.

다는 것이다. 노자의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상관론은 오늘날 우리가 생태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자연관임이 분명하다.

셋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 있으므로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친환경적 덕성배양(德性培養) 교육을 통해 진정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윤리교육은 환경과 인간의 관련성 이해, 환경에 대한 윤리성 제고, 자원의 보전과 대책의 수립, 실천 등을 위해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환경윤리교육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기본적으로 도덕교사들이 환경윤리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이다. 이에 교사들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세 가지 요건⁹³⁾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요건은 환경의 위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윤리학에 대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도 피상적인 공부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공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대안들을 모색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요건은 이러한 능력들을 도덕 교과와 범위 내에서 재해석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교육적 능력을 들 수 있다. 동시에 교과외적 환경교육과의 연계성을 확보해낼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도덕교사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이다. 그러나 도덕교사들이 이 요건들만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환경윤리교육의 방향이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요건들을 통해 환경윤리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전략 방법이다.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전략 방법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자한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환경윤리

93) 추병완 외 3인(2011), 「윤리학과 도덕교육 2」, 서울 : 인간사랑, p. 396~398.

교육의 내용이나 환경 교과 그 자체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성을 약 12세를 전후하여 타율성의 단계에서 자율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맞게 된다. 즉, 도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환경가치에 대한 탐구적 학습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인식, 개인의 가치와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환경적으로 보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의 결정, 새로운 행동이 수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가치와 그 의미를 심사숙고케 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행동과 선택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환경윤리의식은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환경윤리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세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수-학습전략은 학생 중심의 참여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특성, 내용과 형식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기본으로 환경윤리교육 교수-학습 과정의 원리⁹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목표는 관련되는 ‘사실과 개념의 이해, 현상에 내재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과학적 탐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실제적인 참여 활동’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학습 과정의 단계적 위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먼저 학습은 알고자 하는 현상을 어떤 사실적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왜 심화되었는지 이유를 밝혀내어야 한다. 이는 바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즉,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일이다. 교육 목표를 어느 것에 두는가에 따라 내용 구성과 교수-학습의 기반이 달라지게 된다.

둘째, 학습 자료는 교과서와 교과서 외의 자료 및 학습자의 실제 경험 세계 그 자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서는 표준적인 교육 내용을 담은 도서로서 교수-

94) 박태윤 외 5인(2003), 전계서, p. 157~159.

학습 방법과 평가를 결정하는 중심 고리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현실 세계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과서 외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학습자의 실제 경험 그 자체를 교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셋째, 교과 운영 방식은 분과형, 교과간 통합형 및 교과 구획 해체형 등으로 나누는데, 이는 위의 교수 자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교과서만으로 가르치면 분석적인 방법론을 배경으로 한 분과형이 되지만, 그 외 자료를 사용하면 통합하기가 더 쉽다. 학습자 경험 세계를 도입하면 분석적 방법론에서 총체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 때는 교육이 어느 교과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교과의 구획을 해체시켜 완전 통합으로 나가게 된다.

넷째, 학습자를 조직하는 방법에는 ‘개별화와 집단화’의 두 가지가 있다. 학습자 개개인을 단위로 하는 개별화 학습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설정한 학습 목표와 계획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전개해서 주체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 하나의 정형화된 모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닫힌 교육으로 나아가는 문제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교수-학습 과정의 주체면에서는 교사 중심과 학습자 중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는 위의 학습자 조직 방법과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으로는 교사가 주체이고 학습자는 객체로 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학습을 이끌어 가고 교사는 안내 구실을 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교사나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자율의 범위가 있다. 이 부분에는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선택 및 학습 내용 자체의 선정 등이 있다. 이미 주어진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학습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 교수-학습 과정의 원리를 이용하여 환경윤리교육의 방법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어떤 유형의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라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환경윤리교육은 환경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과 환경문제가 여러 영역에 관련해서 발생한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특정 학문별 분과형 보다는 간 학문적이나 다 학문적인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 말할 수 있다.

앞서 교사들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요건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함에 있다. 위 글에서 살펴본 노자의 자연관을 통해 사물의 질서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세계는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고리로 형성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는 순환적 세계임을 재정립을 통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서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물의 질서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인 관계 즉, 공생관계(共生關係)로 보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있어야만 지식도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실천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들의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을 강조하는 노자의 자연관적 관점에서 환경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여 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환경윤리교육은 결국, '환경에 대한' 지식의 전달 과정이나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환경윤리적인 덕성(德性)을 기르는 교육만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의식고양, 행동 실천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적인' 아니 더 정확하게는 '생태학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고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⁹⁵⁾

그러나 현재 환경윤리교육은 과학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 과정을 통제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법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 많은 과학기술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악화 된 환경위기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전보다는 감소되었지만 꾸준히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과학기술의 선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95) 정유성(1994), 「사람, 삶, 되살림」, 서울: 한울, p. 116~117.

지배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문화 체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환경문제의 해결은 생태계 중심의 일련의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문화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 즉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가치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⁹⁶⁾라는 말처럼 현대의 환경위기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이고 개인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에 환경윤리교육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인지적인 환경지식만을 가르치고 외우기 중심의 교육이 아닌 노자가 말하는 도(道)의 실천처럼 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가운데서 흘러 나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내면화되어 스스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이 된 자연 환경을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기계론적 자연관, 그리고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해결해 나가려고 모순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내재된 환경윤리교육을 동양의 일원론적 사고방식인 자연관, 특히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가르침을 통해 지식이나 기능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일원론적인 철학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慈)와 무욕(無慾), 도(道), 덕(德), 검(儉)과 지(止) 사상 등이 통합적인 환경윤리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우리나라 환경윤리교육 자료의 개발은 다른 일반 교육자료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편이나, 근래에 들어와 여러 기관에서 보조자료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교수-학습과정에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96) 어빈 라즐로(1999), 「비전 2020」, 변중현 역(1999), 서울: 민음사, p. 222.

가야할 길이 멀다. 일반적으로 환경윤리교육 자료의 종류는 교육자료의 역할로써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지도, 학생용 참고도서, 시사 정기 간행물 등이 있고, 현장체험, 사진, 삽화, 슬라이드, VTR, TV 등의 시청각자료가 있다.⁹⁷⁾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또한 환경문제의 복잡성, 환경교육 상황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아직 우리나라의 환경윤리교육 역사와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탓도 있으나 다른 교과와 비교해 볼 때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미진한 실정이다. 가능하면 초기에는 관찰, 게임, 현장견학 또는 방문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과제학습, 사례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의 개별학습 활동 또는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효과적인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로는 야외학습(47.5%), 영상자료(39%), 슬라이드나 화보(11.9%), 책에 의한 인쇄자료(0.8%)로 나타나 야외학습이나 시청각 자료라 효과적으로 나타났다.⁹⁸⁾ 이는 현재의 환경관련 교과서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효과적인 환경윤리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경윤리교육에 쓰이게 될 교과서와 자료는 이 점을 고려해서 현장 중심적인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환경윤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자료의 개발보급(36%)’, ‘체계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마련(30.7%)’, ‘사회적 환경교육의 풍토성(26.3%)’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환경윤리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양한 자료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⁹⁹⁾

환경윤리교육자료 개발은 환경윤리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료 개발 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중시하고 단지 교실의 지식적 교과가 아니므로, 여러 매체 및 환경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및 간접 경험을 통한 교육이 산 환경윤리교육이 될

97) 윤정란(2002),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p. 48.

98) 이효녕(2000), 「학교환경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제시를 통한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해결집근」, 한국환경교육협회, p. 32~33.

99) 이점봉(1994), 「환경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 61.

것이다. 즉 여러 가지 환경오염실태의 시청각 자료나 CD-ROM자료들은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가 미흡하다고 대답하였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환경윤리교육을 할 것인가의 해결이 없이는 올바른 환경윤리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대다수 학생들이 대중매체 및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중매체를 이용한 환경윤리교육 자료개발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¹⁰⁰⁾라고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프로그램 또한 매우 필요하다. 결국 단순한 실적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실제 학교 교사들과 학교환경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일치할 때 효과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환경교육학회의 연구보고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환경윤리교육의 방법으로 강의식(63%), 조사(37.7%), 토론(28.9%), 실험실습(17.4%), 시사자료활용(15.3%), 현장학습(13.1%), 탐구(11.9%), 멀티미디어를 통한 방법(8.1%), 열린교육방법(6.8%), 기타(3%), 게임(2.1%)의 순서로 나타나서 강의식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⁰¹⁾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윤리교육은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많은 교사들이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교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개발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100) 박영미(2005), 「환경윤리의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 51.

101) 박경숙(2002), 「환경교육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방안」,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 29.

V. 결 론

본 논문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자의 자연사상을 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 중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도덕경과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본 자료로 삼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들을 활용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의 자연사상은 도를 원리로 하는 덕과 무위자연의 사상이다. 도는 만물의 근원에 대한 명칭이다. 도는 천지의 시작인 만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이는 대, 허, 무 등으로 불린다. 도는 만물을 저절로 생성변화하게 둔다. 그래서 무위이다. 덕은 도의 본질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 발휘되는 도의 공능(功能)이다. 덕에는 상덕과 하덕이 있다. 상덕은 자애(慈), 검소(儉), 겸손(謙)으로 무위, 무욕한 것이다. 하덕은 그와 반대이다. 노자의 모든 사상은 도를 기반으로 덕으로 나타난다. 자연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그것은 무위의 상태이다. 즉 스스로 그러한 상태이다. 무위는 무인위(無人爲), 무작위(無作爲)로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노자는 자연(自然)을 천지만물의 움직임으로 보았고, 무위(無爲)는 인간의 움직임으로 보았다. 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의 원리가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自然) 무위(無爲)는 의미상 구별이 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한다. 즉 자연(自然)은 진리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면, 무위(無爲)는 인간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천하가 자정(自正)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무위(無爲)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자의 자연은 순수존재와 만물의 운동에 대한 논의였다면, 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이라는 개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천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자연(自然)과 무위(無爲) 양자는 둘이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자연이 도(道)의 운동·변화에 대한 개

념이라면 그에 따르는 자연한 행위가 바로 무위(無爲)이기 때문이며, 그 모두가 자화자정(自化自正)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자가 말하는 자연이란 근원으로서의 도(道)가 운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환경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도는 환경윤리와 생태철학의 근거가 된다. 즉 도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탈인간중심주의,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순환체계가 그것이다. 또한 무위로부터 환경윤리적 규범으로서의 덕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배려의 자애(慈)와 욕망을 그치는 검소(儉), 공생과 조화의 겸손(謙) 등이다.

한편 우리의 환경윤리교육은 제 4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시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차원에서 전개되는 환경윤리교육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내용의 설정에 있어서 대체로 과학 기술적,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 체계화가 미흡하고 학년 간, 교과 간의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중학교에서는 환경윤리교육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경윤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중학교의 수준에서 환경윤리교육이 여러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각 과목끼리 연계가 부족하고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목을 신설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중학교에서 환경윤리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노자가 자연의 섭리에 인간의 욕망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자연 친화적 인식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경쟁적 이익추구와 욕망충족에 대하여 반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이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과제이다. 바로 무위(無爲)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연구가 과제이다. 교사들의 능력과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과에서도 환경부분이 1학년에 집중되어 있어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과제이다.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알맞은 시기와 시간을 통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와 현실 파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환경윤리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적 사고로부터 노자의 환경윤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다. 노자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이를 이용, 파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자연이법(自然理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서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 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자연은 우리의 도구이며, 이용 대상일 뿐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은 자연과의 부조화(不調和)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고, 인간 대 자연이라는 대결구도를 심어 넣었고, 이렇게 굳어진 가치관은 자연을 인간에게서 밀어내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전환하여 노자의 자연관이 말하는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갖고 자연의 구성원으

로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인위적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환경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환경윤리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환경윤리교육의 장이란 환경윤리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실내 보다는 야외공간에 위치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무위자연의 덕목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노자의 자연관에서 무위(無爲)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 즉,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인위(人爲)와 유위(有爲)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손되고 오염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위(無爲)의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水)의 덕행(德行)이며 이를 가리켜 노자는 상선(上善)이라 말한다. 또한 노자는 ‘복귀어영아(復歸於嬰兒), 복귀어무극(復歸於無極), 복귀어박(復歸於樸)’의 세가지를 무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복귀어영아(復歸於嬰兒)는 유약(柔弱)을 강조, 어린 아이를 비유하여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귀어무극(復歸於無極)은 무극(無極)으로 돌아가는 의미로 여기서 무극(無極)이란 극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양극의 대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이런 극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 복귀어박(復歸於樸)은 현대 환경윤리에서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인 소박(素朴)을 말하고 있다. 과욕을 억제하고, 소박으로 회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은 자연, 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환경 교육적 접근이 통합될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환경윤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위기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환경위기를 본질적으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연관된 문제이다.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전략 방법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자한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윤리의식은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참여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특성, 내용과 형식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정리하자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인지적인 환경지식만을 가르치고 외우기 중심의 교육이 아닌 노자가 말하는 도(道)의 실천처럼 학생 스스로 내면화되어 스스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윤리교육은 역사와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탓도 있으나 다른 교과와 비교해 볼 때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미진한 실정이다. 가능하면 초기에는 관찰, 게임, 현장견학 또는 방문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과제학습, 사례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의 개별학습 활동 또는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자료로는 야외 학습, 영상자료, 슬라이드나 화보, 책에 의한 인쇄자료 순서로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프로그램 또한 매우 필요하다. 결국 단순한 실적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실제 학교 교사들과 학교환경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일치할 때 효과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행 과정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즉 다루는 내용과 대상을 의도적으로 한정시키고 있고, 결과의 도출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물 들인 2차, 3차 자료 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연구문헌

- 가톨릭정의평화연구소(1993), 「알기 쉬운 공해추방상식」,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 교육인적자원부(2003), 「윤리와 사상 - 교사용지도서」, 서울 : 지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10), 「중학교 도덕 1, 2, 3(제 7차 교육과정)」, 서울 : 지학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환경교과)」,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도덕과)」,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총론 - 중학교 도덕과」,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구승희(2001),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 국민윤리학회 편(1994), 「사상과 윤리」, 서울 : 형설출판사.
- 김귀곤(1995),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 대구 : 배영사.
- 김길환(1981), 「동양윤리사상」, 서울 : 일지사.
- 김영희(1994), 「신과학 산책」, 서울 : 감영사.
- 김용옥(1999), 「노자와 21세기 [1]」, 서울 : 통나무.
- 김용옥(1999), 「노자와 21세기 [2]」, 서울 : 통나무.
- 김용옥(2000), 「노자와 21세기 [3]」, 서울 : 통나무.
- 김용옥(2000), 「노자철학 이것이다.」, 서울 : 통나무.
- 김일방(2005), 「환경윤리의 쟁점」, 서울 : 서광사.
- 김충열(1999), 「김충열교수의 노장철학 강의」, 서울 : 예문서원.
- 김충열(2006), 「김충열교수의 노자 강의」, 서울 : 예문서원.
- 김하풍(2008), 「빈 마음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서울: 문예출판사.

김학주(2000), 「노자」, 서울 : 을유문화사.

김항배(2007), 「김항배 교수의 노자철학 이해」, 서울 : 예문서원.

남상준 외 4인(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 원미사.

박말임(2008), 「노자 자연철학의 환경윤리학적 탐색」, 서울: 문예출판사.

박영기(2009), 「동양 도덕교육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 인간세상.

박이문(1996),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 서울 : 민음사.

박이문(2002), 「환경철학」, 서울 : 미다스북.

백승영 외 8명(2000),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서울 : 민음사.

변운용 외 9인(2012), 「중학교 도덕1,2,3(제 7차교육과정 수정판)」, 서울:천재교육.

서규선, 문종길(2001), 「환경윤리와 환경윤리 교육」, 경기 : 인간사랑.

안중수(2006),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주).

안중수(2002), 「동양철학의 흐름」, 서울 : 소강.

어빈 라즐로(1999), 「비전 2020」, 변종현 역(1999), 서울 : 민음사.

오강남(2008), 「도덕경」, 서울 : 현암사.

유진 하그로브(1994), 「환경윤리학」, 김현철 역(1994), 서울: 철학과 현실사.

이강수(1997), 「노자와 장자」, 서울 : 길.

이용필 외 3인(2002), 「지구촌 생태계의 위기와 환경윤리교육」, 서울대학교.

임채우(2001), 「王弼(왕필)의 도덕경」, 서울: 예문서원.

정유성(1994), 「사람, 삶, 되살림」, 서울 : 한울.

조근태(1995), 「도덕경」, 서울 : 현암사.

조용개(2008), 「생태학적 삶을 위한 환경윤리와 교육」, 한국학술정보(주).

조현규(2001), 「동양윤리사상의 이해」, 서울: 새문사.

진동일(1992), 「노자의 50자 철학 여행」, 서울: 문학세계사.

추병완·박병기·이경원·변종현(2011), 「윤리학과 도덕교육 2」, 서울: 인간사랑.

최석진(2000), 「교과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 서울 : 환경교육과정평가원.

최진석(2002),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한국국민윤리학회 편(2005), 「사상과 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p. 200 ~ 201.

한국철학회 편(1998), 「기술문명에 대한 철학적 반성」, 서울:철학과 현실사, p. 65.

2. 연구 논문

- 강봉수(2008), 「가파도 풍력발전 개발사업 환경조사보고서」, 한신에너지주식회사.
- 김대평(2005), 「노자의 자연관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일수(2005), 「생태와 환경 교과서를 통한 학교환경교육의 윤리성 확립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승만(2000), 「노장의 자연철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 문민정(2008), 「노자사상과 환경윤리적 의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숙(2002), 「환경교육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방안」,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덕인(2004), 「노자사상의 환경윤리적 함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미(2005), 「환경윤리의 교수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종우(1997), 「비인간중심적 환경윤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형구(2001), 「노자 자연권의 환경윤리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현주(2001), 「자연의 의미와 생태적 윤리관 - 노자를 통해 본 생태윤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정연(2009),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한 환경윤리교육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민주(2008), 「환경교육의 실태와 환경윤리교육의 강화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종모·유병래(1997), “노장의 자연철학과 현대 환경문제”, 「장안논집」, 제 17권, 장안전문대학.
- 유선운(2003), 「동양사상에 나타난 환경관」,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덕(2000),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윤리적 사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세나(2012), 「노자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점봉(1994), 「환경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효녕(2000), 「학교환경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제시를 통한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해결 접근」, 한국환경교육협회.
- 전효정(2007), 「생태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규(2002), “노자 자연철학의 환경윤리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제 21집, 한국교육철학회.
- 주미화(2010), 「중학교 도덕교과에서의 환경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재목(1995), “환경윤리의 이론적 근거”, 「현대와 종교」, 제 18집, 한국종교문화연구재단 부설 현대 종교문화 연구소.
- 추병완(1992), “환경 윤리 함양을 위한 지도 방법의 모색”, 「교육개발」, 제 77집, 한국교육개발원.
- 홍순경(1993), 「환경문제에 대한 가치론적 논의」,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3. 기타

- 기상청(2010), 「2010 이상기후특별보고서」, 서울: 기상청.
- 난수하수처리사업소 사이트, <http://nanji.seoul.go.kr>
- 환경부 사이트, <http://me.go.kr>
- 환경부(2010), 「환경백서」, 서울: 환경부.

Abstract

Study on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Based on Lao-Tzu's Idea of Nature - Centered on Middle School Moral Education -

Kim Hyun-Ki

Major in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Jeju University

(Supervisor Yang Bang-Ju)

To resolve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 fundamentally, humans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 regards nature at first. In order to have such change, sustainable and systematic education is crucial. Also change of perception does not happen in a day but i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endless efforts for long time.

Currently,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s importance has been emphasized due to environmental crisis so Korea had selectable subject regards environment from 6th Education Curriculum and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has been covered by moral education sector.

However, regardless of the importan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has many problems. It lacks material, requires

too much studying, does not have systematic curriculum, and has low environmental interest of students. Also the education only focus on lecturing knowledge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education is only emphasized.

The factors to resolve the current problem is basically two. First is to have appropriate teachers with such capability. Secondly the teachers should gain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teaching method. The teachers should re-establish right relation between human and the nature so that students can have perspective to see order and virtue of objects. Also they can understand that human and nature is connected with organic loop with constant relationship. Also appropriate teaching method should be used to encourage students to develop their capability harmoniously and make them experience for themselves. The teacher should not be just delivering knowledge.

Among many resolutions for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problem, this study focus on improving teaching methods for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based on Lao-Tzu's idea of nature and seeks ways to overcome environmental crisis.

Especially, this study aims to figure environmental ethics idea from Lao-Tzu's idea of nature so that we can overcome environmental crisis and the following are the main perspectives.

Thirdly, the study seeks ways to integrate Lao-Tzu's idea of nature with middle school environment ethics education so that the education remains as practical and empirical not just to inject and deliver knowledge. With such education, students can have change of perspective in natural law and monism based on idea of "Integration with nature". This allows them to gain attitude and mind to love nature spiritually based on idea of "mercy", "frugality" and "modesty". Also, constant implementation of Lao-Tzu's idea of nature on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will bring change of perception and this will take crucial role in overcoming environmental crisis.

Severe destruction on ecosystem, abnormal climate due to global warming

and other natural disasters are keep on happening with continuous destruction of nature by humans. This is serious problem for human themselves and Lao-Tzu's idea of nature which is harmonious perspective, will be the key to overcome today's environmental disasters.